

광주 5개 자치구, 동광주시 등 시 전환·명칭 변경 추진

양부남 국회의원, 오늘 ‘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통합 출범 후 행정체제 첫 손질…구 자치권·재정권 격차 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인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는 대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기존의 구정을 시로 전환하고, 명칭의 경우 동구가 ‘동광주시’로, 서구는 ‘서광주시’로 광산구는 ‘광산시’로 바꾸자는

변경하는 내용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구정장들의 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는 대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특별시가 지원하고, 이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로 승격해도 각 자치구에서 근무하거나 소속돼 있는 직원·지방의회 의원·기관장은 그대로 해당 시에서 소속된다는



부족도 포함됐다.

그동안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재정·조직·과세권 등의 권한이 통합된 전남 지역 시·군보다 작다며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행 특별법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자치구는 일반 시와 달리 지방세와 재정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제도적 불균형

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군의 경우 직접 거두는 세금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담배소득세 등 5가지지만,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2가지뿐이어서 재정적 불균형이 발생,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통합특별시 내 지자체간 권한 격차를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현재 초안 단계로, 양 의원은 8월 5개 자치구 구청장과 만나 법안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뒤 10일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권과 재정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정형회회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효과가 주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자치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통합의 본래 취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국회 통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시의회, 정부부시장 청문회 대응 논의

오늘 운영위 간담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집행부의 인선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간담회를 열어 인사청문회 운영과 청문위원 선임 등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수위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현행 조례와 집행부의 정부부시장 공모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회는 조례상 직무와 공모 분야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정면하지 않은 채 지난 6일 후보자 2명을 발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조례 개정을 먼저 진행한 뒤 청문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지와 함께 인사청문회 자체를 예정대로 개최할지도 검토

할 방침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는 시민추천제로 지명된 2명 모두 민형배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라는 점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시민추천제가 특정 인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는지 여부와 함께 후보자의 행정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후보자 발표 과정에서 이미 불거졌다. 송형곤 의장은 지난 6일 민 시장을 만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인선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 항의했다. 민 시장은 관련 설명이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았으며 사과하고 인선 배경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결론을 정한 뒤 의회에 알리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며 “인선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어떻게 공문화하고 바로잡을지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9일 강릉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강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옌보

김민석, 민주 강원·TK경선 휩쓸어…누적득표 1위

누적 9만5821표…정청래에 1.48%p차 승리

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한민수·서미화 순

김민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주말에 치러진 세 번째와 네 번째 순화경선을 잇따라 이겨 기세를 올렸다.

김 후보는 8일 제주·인천 경선과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연거푸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득표에서도 정 후보에 3086표를 앞서 달렸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에서 김 후보가 대세를 굳힐 지 정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8·17 전당원대회 네 번째 순화일정인 강원·대구·경북 경선 관리당원 투표를 집계한 결과 김 후보가 세 지역 합산 1만8977표를 차지해 1만7355표를 얻은 정 후보를 1.48%p(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천명(천이재평)계 후보가 선전했다.

8일과 9일 경선에서 4위였던 서미화 후보가 약진하며 3위로 올라섰고, 2위인 박선원 후보는 1위 최민희 후보와의 표차를 499표까지 줄였다.

천청(전정청래)계에서도 줄곧 6위였던

정 후보를 제쳤다. 송 후보는 4799표를 얻었다.

정 후보는 지난 1일 대전·충남·세종·충북에서 진 뒤 다음 날 울산·부산·경남을 잡아 시소계임을 연출했지만 이번 주는 김 후보에게 연달아 선두를 내주고 말았다.

김 후보는 주말 경선을 모두 쓸어담아 누적득표에서도 앞서 나가면서 대세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표 차가 크지 않은 박빙 대결구도다.

김 후보는 네 번의 순화경선에서 모두 9만5821표를 차지해 46.01%로, 9만2735표를 얻어 44.53%에 그친 정 후보를 1.48%p(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천명(천이재평)계 후보가 선전했다.

8일과 9일 경선에서 4위였던 서미화 후보가 약진하며 3위로 올라섰고, 2위인 박선원 후보는 1위 최민희 후보와의 표차를 499표까지 줄였다.

천청(전정청래)계에서도 줄곧 6위였던

이성운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다.

강원·대구·경북경선에서 당선권인 5위까지 최민희(1만3226표), 박선원(1만2827표), 서미화(1만1560표), 한민수(1만1061표), 이성운(9947) 후보 순이었다. 김용(9934표)·임미애(7541표)·김영호(1938표) 후보는 6~8위였다.

다만 이날 경선까지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득표에서는 앞서 세 차례 경선에서 나타난 순위를 그대로 이어갔다.

최민희 후보(8만4466표)가 1위였고, 이어 박선원(6만9684표), 한민수(5만9953표), 서미화(5만9327표), 김용(5만2704표), 이성운(4만9497표), 임미애(2만7797표), 김영호(1만3064표) 후보 순이다.

이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관리당원 비중이 월등히 높아 ‘최대 승부처’가 될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경선에 당원파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15일 호남 경선 결과는 다음 날 이어지는 마지막 경기·서울 경선과 오는 17일 당일까지 이어질 여론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가 기세를 몰아 표차를 크게 벌리며 대세를 형성할지, 정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날 강원·대구·경북 경선을 앞두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는 2년 후 총선 수도권 승리를, 강릉의 승리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합치 승리를 상징한다”며 “바로 (선거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김 후보 행적을 재차 상기하며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벌써 당 대표가 된 양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 저 사람한테 저 당직 주고, 이래서야 되겠냐”라고 비난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대표 시절 처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뿔 대 뿔으로 이겼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란 세력으로 척결돼야 할 정치 세력을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 세력으로 부활시킨 것이 가장 뼈아프다”며 “대통령도 반드시 이겨야 할 곳을 진 데 대해 아픔을 토로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실속형 광주특별시 공공예식장 ‘호응’

광주청사 빛의정원·인재교육원…이용료 1만~3만원대

고물가 시대에 가을·겨울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 예약이나 높은 비용으로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예식 공간’인 ‘빛의 정원’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청사 내 잔디광장, 1층 시민홀, 잠미공원 등 ‘빛의 정원’을 시민들의 특별한 결혼식 장소로 개방·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예식장은 ‘파격적인 비용’과 ‘나만의 자유로운 예식 컨셉’이 장점이다.

이용료는 야외광장의 경우 1일 1만원, 실내 공간은 2시간당 1만원(냉·난방비 별도) 수준으로,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기본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전기)이 완비돼 있으며, 예식 소품과 꽃장식을 예비부부가 직접 기획해 하나뿐인 개성 있는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다.

하객들을 위한 피로연 역시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다. 광주청사 구내식당을 활용한 간편 식사(국수 1인당 5000원) 제공은 물론 야외 출장발상(케이타링)도 가능하다. 특히 야외 예식 중 갑작스러운 우천 등 기상 악화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실내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광주청사 ‘빛의 정원’은 지난해 총 8팀, 올 상반기 3팀(100~250명 규모)이 예식을 치렀으며, 하반기 6팀이 예약을 하는 등 시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인재교육원 후생관도 주말 및 공휴

일에 공공예식장으로 개방돼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 곳에서는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 상반기 1건의 예식이 진행되는 등 주말 공공예식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80석 규모의 후생관은 신부대기실(페백실 겸용), 152석 규모의 하객 접대 공간, 28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췄다. 이용료는 3만원(냉·난방비 별도)이며, 음향·조명 설비와 출장뷔페 이용 때 구내식당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예식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주인재교육원 후생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권 및 이용료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여유로운 진행을 위해 ‘1일 1회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총무과(062-613-2881) 또는 광주인재교육원(062-613-7022)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정부 공공자원포털인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길상 총무과장은 “처소는 결혼식 비용으로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시청사와 공공기관 개방이 현실적이고 따뜻한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 문화를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남도 K-가든 페스티벌’로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

내달 11일부터 여문문화거리…황지해 작가정원 등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불업 행사로 다음달 11일부터 여수 여문문화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준비에 나섰다.

가든 페스티벌은 생활권 15분 거리 내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불업 행사로 다음달 11일부터 여수 여문문화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남도 K-가든 페스티벌’ 준비에 나섰다.

10월 31일까지 여수 여수동 여문문화거리에서 미관광장까지 약 1만5000㎡ 규모로 펼쳐진다. 여수의 섬과 바다를 정원으로 만들고 거리와 광장, 골목 곳곳을 정원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이어지는 ‘숲속의 정원도시’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표 정원으로는 통합특별시 출신 세계

적 정원이 황지해 작가가 붉은 태양, 난대 숲, 도시와 섬의 미래를 형상화한 ‘가시나무 몽상’을 선보인다. 황 작가는 2023년 영국 첼시플라워쇼 금상을 수상하고, 2024년 뉴욕한국문화원에 남도의 전통정원 ‘애양단’을 선보인 정원 디자이너다.

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플리마켓과 가드닝 체험, 정원 버스킹 등 정원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고, 걷고, 체험하며 머무는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